또 집단감염?… '노심초사'

제주 코로나19 연일 확산… 주말에만 31명 추가 확진
월 기준 역대 최다 확진 7월에만 집단감염 10건 넘어

주말과 휴일 이틀새 제주에서 3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13일 연속 두자릿수 확진이 이어졌다. 또 새로운 집단감염 추정 사례가 발견돼 도방역당국이 질병관리청과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31일 20명(1733~1752번)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이어, 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1명(1753~1763번)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1763명으로 늘었다. 또 지난 7월 한 달간 발생한 감염자 수는 487명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통틀어 월별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달 도내에선 10건이 넘는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연일 새로운 기록이 쏟아졌다.

월별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이미 지난달 24일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섰으며, 그보다 앞서 그달 20일에는 하루 기준 신규 확진자 수(34명)가 역대 최다치를 나타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도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13일 연속 두자릿수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11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3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나머지 7명은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았다.

주목할 것은 새로운 집단감염 발생 여부다. 도방역당국은 1734번, 1738~1739번, 1741번, 1743~1744번, 1747번, 1749번, 1751~1752번 등 10명은 같은 공간 내 선행 확진자와 접촉이 이뤄지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돼 연쇄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같은 경로로 5명이 확진될 경우 집단감염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이들 10명을 상대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으며 집단감염으로 묶을지, 개별감염으로 분류할 지에 대해 질병관리청과 협의하고 있다.

도관계자는 "아마 정확한 감염 경로가 드러나고 질병청과 협의가 끝나는 2일 오전 쯤에는 집단감염 분류 여부가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일 오후 5시 현재 제주에서 격리 치료를 받는 확진자는 190명이며, 도내 남아 있는 가용병상은 154병상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촤~~~악'… 폭우 쏟아지던 날 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31일 제주시청 앞 도로를 차량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고 있다. 이상국기자

서민 울리는 사기꾼들 "끝이 없네"

경찰, 2~7월 전화금융 등 사기범죄 특별단속 221명 검거

제주를 무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사기범죄(전화금융·사이버·취업·전세·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430건에 221명을 검거, 이 가운데 21명을 구속했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A(31)씨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1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B(36)씨의 경우는 관광객 등을 상대로 천혜향 판매와 렌터카 및 숙박업소 예약을 미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1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C(55)씨 등 16명은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뒤 카드매출 전표를 허위로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6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됐고, D씨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 약 2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도 이번 단속 기간 중 90명이 검거돼 이중 15명이 구속된 상태다.

아울러 경찰은 올해 2월 신설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피해금 추적·회수에 나선 결과 11건의 범죄 피해금 30억3000만원을 몰수·추징 보전하기도 했다. 주요 사례는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월 사용료 150만~20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유통한 대포통장 조직원 8명(7명 구속)에게 7500만원을 추징한 것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오는 10월 말까지 두 번째 사기범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사기 피해로 이중의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예방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게스트하우스 '즉석 만남' 금지

중수본 "알선시 '파티'로 간주… 방역수칙 위반"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이용객들 간 '즉석만남' 등을 주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숙박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만남·미팅·소개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숙박시설 주관 '파티'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것으로 방역수칙을 해석해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4단계에서는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하도록 했다. 불특정 다수 등 개인 간 접촉 최소화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최근 관광지 주변 게스트하우스 등 일부 숙박시설에서 이러한 방역수칙을 회피해 이용객들 간 만남을 주선하는 등 편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수본은 "구체적인 해석 사례가 없어 점검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만남 등을 알선하는 행위도 '파티'로 보고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에는 관내 숙박시설을 상대로 해당 방역수칙의 홍보와 함께 해석례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제주지역에선 제주시 구좌읍·애월읍·조천읍 소재 게스트하우스를 감염 고리로 코로나19 연쇄감염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게스트하우스 집단감염은 타 지역에서 온 방문객과 종사자들이 장기간 공용 공간을 이용하고, 다른 게스트하우스로 옮겨 투숙하는 과정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강다혜기자

도, 렌터카 불법영업 수사의뢰

제주특별자치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내 한 렌터카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해당 업체가 렌터카 총량제로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된 점을 틈타 타시·도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후 차량 수십대를 반입해 불법 영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영업이 인정되면 해당 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타시·도 등록업체의 경우 직접 행정처분할 수 없어 사법기관 수사 의뢰 및 해당 관할관청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고 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불법영업 업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관광기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이번 수사의뢰 이외 올해 영업정지 2건(104대), 과징금 부과 1건(500만원), 타시·도 이관 4건(4개 관할 경찰청)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 4개 업체·41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렌터카 이용객의 피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집단감염 온상 유흥주점 단속 연장

경찰 "게스트하우스도 단속"

제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경찰이 '유흥주점 특별단속' 기간을 한달 더 연장키로 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도 추가된다.

제주경찰청은 7월 31일까지로 예정됐던 지자체·자치경찰단 합동 '유흥주점 특별단속' 기간을 한달 더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도내 유흥시설 집합금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서 유흥시설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임 없이 나옴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23일과 29일 제주시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접대부 고용 등 위반행위가 12건 적발된 바 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최근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도내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도 지자체, 자치경찰단과 함께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5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대상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된 후 이용객들이 방역현장의 사각지대인 카페와 바 등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여성 신체 촬영 40대 집유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1시쯤 제주시 한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네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54개를 다운로드한 뒤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은범기자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 · 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페르카 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핵심 물질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Cocoly
Powerful
용량 : 20kg
달팽이추출물 —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펄빅산 —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AA —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왁스바실러스 —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NAVER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밭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그랜드 보청기
그랜드보청기 확장이전 파격할인!!!
사업주 코로나19 백신접종 안심센터
2021년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초소형보청기 BLACK SWAN
동영상 청취가능
「전문가 처방」 어플리케이션 소리조절 보청기로 음악청취/원격 비대면 조절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춘들 혼저 전화 주십서! 기다렸수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삼겹구이 2층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서사라 사거리 제주시버스터미널 그랜드보청기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제주대 와이덱스 보청기 CGV 화북 광양사거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